

박근노·임각균 대표 '자랑스런 중기인'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2차전지 조립장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기술력을 갖춘 나인테크의 박근노 대표(왼쪽)와 기업의 인사·총무업무등을 대행하는 경영지원 플랫폼업체 이트너스의 임각균 대표(오른쪽)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박대표와 임대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년 설립된 나인테크는 국내 우수 대기업에 전기차용 대용량 2차전지 조립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박 대표는 LCD(액정표시장치) 분야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



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장비 및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설립된 이트너스는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 사무환경 등을 대행해주는 경영지원 플랫폼업체다. 안대규 기자



박근노 대표

임각균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박근노·임각균 대표 선정

중소기업중앙회가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와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회사로 2006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18종의 특허 및 각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다. 나인테크의 박 대표는 액정표시장치(LCD) 분야 엔지니어로 일하다 회사를 설립해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의 최신화와 2차전지 분야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벤처기업협회 임원으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임직원과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해 함께 성장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명이다.

경영지원 플랫폼 기업 이트너스의 임대표는 지속적인 기부와 선행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또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이트너스 아카데미'를 신설해 직무 관련 전문 지식 강의를 청년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점 등에 호평을 받았다.

한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이완기 기자

4분기 '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박근노·임각균 대표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와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하는 2021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됐다. 나인테크는 2006년 설립돼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주력 생산하는 기업이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차원(D) 합착장비,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용 조립장비를 개발했다.

이트너스는 경영지원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2018년 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에도 20~30%



박근노 대표

임각균 대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트너스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사회공헌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자랑스러운 중소기업' 박근노·임각균 대표

(나인테크) (이트너스)

'나인테크' 디스플레이 장비 최신화·2차 전지 발전 기여 '이트너스' 아카데미 신설 등 청년 위한 사회공헌 앞장

브릿지경제 2021년 12월 01일 수요일 018면 Op & People

박근노·임각균 대표 '자랑스러운 증기인' 선정

반도체 장비·핵심부품 국산화 박차 경영지원플랫폼으로 복지향상 기여

2차전지 제조용 장비 개발
국내 대기업·中 공장 공급
경영지원플랫폼 개발
근로자 복지향상 공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박근노(왼쪽 사진) 나인테크 대표이사와 임각균(오른쪽 사진) 이트너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주력으로, 2006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18종의 특허 및 각종 인증을 획득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D 합착장비와 미래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용 조립장비 개발을 통해 국내 대기업 및 폴란드, 중국 등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박근노 대표는 1995년부터 약 11년 동안 LCD분야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기반으로 나인테크를 설립했다. 반도체 장비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최신화 및 2차 전지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트너스는 경영지원플랫폼 기업으로, 4건의 특허취득과 3건의 특허출원, 35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2018년 500억대 매출에서 2019년 약 30%, 2020년 약 20%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이사와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이사 |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이사

우선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주력으로, 2006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18종의 특허 및 각종 인증을 획득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D 합착장비와 미래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용 조립장비 개발을 통해 국내 대기업 및 폴란드, 중국 등 세계적인 공장에 장비를 공급해 2차 전지 분야 기술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기업이다.

박근노 대표는 디스플레이 산업 초창기인 1995년부터 약 11년 동안 LCD분야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기반으로 나인테크를 설립해 반도체 장비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최신화 및 2차전지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박 대표는 대외적으로는 경기벤처기업협회 임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정보 상호 교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련 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과 성과공유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 구성원이 다함께 성장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트너스는 경영지원서비스 분야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지원플랫폼 기업이다. 4건의 특허취득과 3건의 특허출원, 35건의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500억대 매출에서 2019년 약 30%, 2020년 약 20%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재황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화합을 통한 근로환경, 복리후생 제도의 끊임없는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각균 대표는 지속적인 기부와 선행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사내봉사단 'Wetners'를 조직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 주고자 '이트너스 아카데미'를 신설해 인사, 총무 등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한 강의를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사회공헌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동명 기자 simal0422@